

수출기업 10곳 중 6곳, 고금리에 허덕

“수익으로 대출이자 감당 어려워”

무렵,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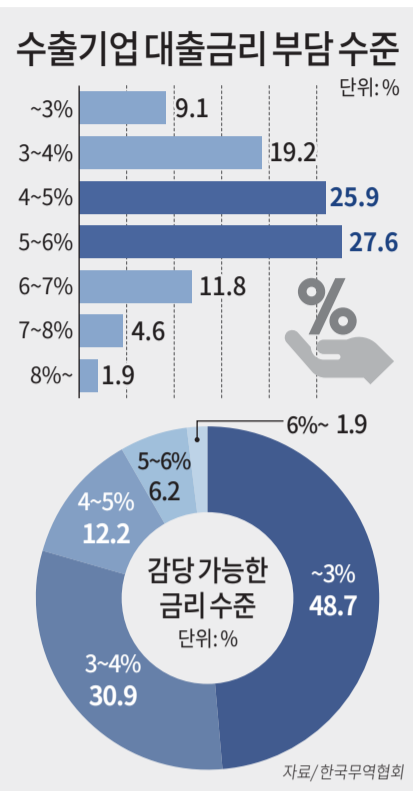
매출 10억 미만 기업은 73% 달해 63% “전분기대비 자금상황 악화” 기업 80% “금리부담 완화” 건의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기도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더 컸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57.3%에 달했다.

같은 응답비율은 작년 7월 49.8%에서 9월 51.5%, 12월 53.5%에 이어 3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수출기업의 경우 응답비율이 72.9%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5% 전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감당가능 금리수준은 3%인 것으로 나타나, 초과 금리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3.3%는 ‘전 분기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조사(60.1%)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3분기 연속 증가했다. 수출기업들은 금융 관련 주요 현안

으로 ▲기준금리 인하(83.5%) ▲해외 부동산 시장불안(31.8%)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21.5%)을 꼽았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리부담 완화(79.7%) ▲대출·신용보증 한도확대(58.5%)가 지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적정하거나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2%로 지난 조사(2023년12월, 24.2%) 대비 17.8%포인트 증가해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 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복수응답)는 ▲중소기업 가산금리(49.1%)·고금리(40.1%) 감면 ▲보증지원 확대(34.9%) ▲신산업 우대자금 지원(34.7%) 등으로 파악됐다.

이인호 무역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정책금융이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분기 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2.7% ↑

산업부, 역대 1분기 중 최고 기록 하이브리드차 수출 37% 증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이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75억달러(수출량 69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다. 지난 2월 52억달러로 감소했던 수출액도 3월 62억달러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다.

3월 수출과 내수 특징은 하이브리드차(PHEV 제외)의 약진이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한 8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내수 시장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24% 성장한 4만대가 판매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의 국내의 판매 호조세는 부품업계에 안정적 일감을 공급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자동차 생산은 36만5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다만, 이는 작년 월평균 생산량인 35만4000대를 상회하며 올해 1~3월 생산 중 최고치다.

1년 전보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사(기아 광명2공장)와 조업일수(-1.5일)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2.0% 하락해 전체 내수 판매는 감소세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24%)와 전기차(+16%) 판매가 두 자릿수대 증가율로 호조세다.

이런 영향으로 3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8.6% 증가한 6만1000대로 기존 최고 실적(2023년11월, 5.8만대)을 경신했다.

산업부는 “사상 최고 수출실적(709억달러)을 기록했던 지난해 자동차 업계 수출 모멘텀이 올해에도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견기업, 2분기 수출·생산·투자 전망 상승

산업부·중견연, 경기전망조사 3분기 연속 직전분기 대비 올라

중견기업들은 2분기 수출·생산·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 전반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26일 ~ 3월11일까지 진행됐다. 전망지수가 100이상이면 긍정, 100미만은 부정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수출 98.1(0.5p ↑), 내수 91.9(1.4p ↑), 생산 98.0(1.4p ↑), 설비투자 99.4(0.2p ↑), 영업이익 89.9(2.1p ↑)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다만, 세계경제둔화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92.3(0.4%p ↓)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은 1차 금속·금속가공(100.6, 7.0p ↑), 기타 제조업(105.4, 9.5p ↑)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고, 전자부품·통신장비(103.5), 식음료품(100.3), 도소매(101.2)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내수는 식음료품(118.3, 15.7p ↑), 운수업(100.2, 12.9p ↑)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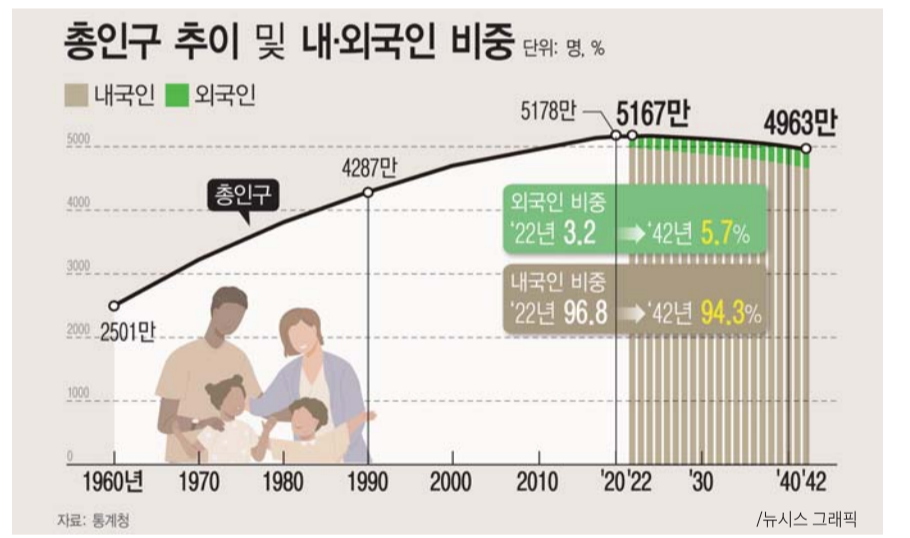
생산은 식음료품(112.5, 10.0p ↑), 자동차(103.8, 3.9p ↑)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경우 1차 금속

(103.9, 8.4p ↑), 자동차(100.5, 5.4p ↑) 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각각 소폭 상승했다. 전자부품(116.8, 13.1p ↓)도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했다.

중견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34.7%)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44.0%)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2042년 외국인 인구비중 6% 육박할 듯

통계청, 2022년 기준 인구추계 내국인 96.8%→94.3%로 감소 외국인 285만명으로 5.7% 추산

은 같은 기간 3.2%(165만 명)에서 5.7%(285만 명)로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42년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외국인 비율은 3% 초반을 기록했다. 이는 내국인 인구는 크게 줄고 외국인 인구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 통계청 전망에 따른 추산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2025년 이후 10년간 0.26% 줄어든다. 이후 2042년까지는 감소세(-0.44%)가 더 확대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 인구는 각 기간 계속 늘어난다. 다만 해당 두 기간 증가세는 +2.15%, +1.64%로 점차 둔화한다.

이 결과, 총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비는 20년새 2.5%포인트(p) 올라갈 전망이다.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002만 명)에서 2042년 94.3%(4677만 명)로 낮아진다. 외국인 비율

한편,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65세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 명 감소한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15.5%p 줄어든다.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수준이 된다. 저출산 현상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1.7%에서 8.1%로 한 자리 수로 떨어진다.

65세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36년 1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넘어선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세수입 7.2조 증가... 나라살림은 ‘적자’

기재부, 2월 누계 총수입 97.2조 총지출 12.5조 늘어 127.1조 집계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늘어나며 총수입이 7조2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7조2000억 원 증

가한 9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대비 0.2%포인트(p) 오른 15.9%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견딜 것으로 예상한 총수입 612조2000억 원 중 15.9%가 1~2월 중 견뎠다는 뜻이다.

국세수입은 58조 원으로 3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에 감소한 뒤 올해 1월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3000억 원, 1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2조5000억 원 증가한 127조1000억 원이었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연간계획 252조9000억 원 중 63조 원이 2월에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24.9%로 전년대비 4.2%p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9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